



조용목 목사 “통일지상(統一至上)주의, 감상(感傷)주의, 온정(溫情)주의, 모험(冒險)주의 경계해야”



조용목 목사
한기총 원로자문회의 고문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한기총 주최 8.15 광복절 79주년 기념예배 “광복의 은혜에 감사”… “광복의 은총을 더욱 복되게”

또 다른 억압이나 압제에 갇힐 수밖에 없다. 한기총은 상존하는 폭력과 압제에 저항하며, 자유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회장 함께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성전 베다니성가대의 찬양, 한기총 원로자문회의 고문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시 126:1-6 말씀을 본문으로 ‘광복의 은총을 더욱 복되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공포된 한일합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 치하에서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국권과 국토가 유린되고 침략당했다. 국민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온갖 압박과 수모를 견디어야 했다. 독립투사 선열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애썼지만 국권을 회복할 기운은 없었다. 자유와 해방을 갹취하려면 일본제국을 대항하여 물리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기치 못한 해방이 갑자기 성큼 다가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이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다. 미국에 의하여 얻게 된 해방

이며 자유다. 미국이 일본보다 힘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 결정적인 힘은 원자폭탄이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와 번영을 향유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데 휴전선 이북은 일제 치하에서는 자유를 얻었으나 공산주의 독재자치하에 놓이게 되어 거주와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인권유린에 신음하고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독재통제사회다”라고 했다.

조 목사는 또 “6.25전쟁 정전협정 조인을 한지 7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155마일 휴전선으로 한반도는 허리 절린 채 두 동강 나 있다. 지금도 군사분계선 주변에는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집중 배치되어 서로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를 돋기 위해 양식을 비롯하여 막대한 물자 지원을 하여 왔다. 그뿐 아니라 어리석게 수억 달러의 현금지원을 했더니 그 돈으로 핵폭탄을 개발하고 결국 핵보유국이 되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위험은 더욱 증폭

되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설마>보다 <만약>을 생각해야 한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이 함께 경계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뒤 바뀌면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평화, 화해, 일치, 사랑이라는 언어의 유희에 취하면 정의, 진실, 신의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무분별한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 인민과 북한 당국을 분별하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은 피차를 해롭게 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모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존립과 국민의 안녕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염원은 속히 평화통일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평화통일을 비라지 않는다. 적화통일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협약한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온갖 방법으로 도발과 테러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북한을 도와서 6.25전쟁을 일으켰던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실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을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남북관계나 주변국 그리고 국제정세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하다. 우리 정부의 힘으로 복잡 미묘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제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는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大事)를 행하여 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 79년 전 우리나라의 해방은 기적적으로 다가왔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통일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본을 따라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여리 형태와 규모로 시행되어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솔리스트 정영환, 솔리스트 김성혜 성도의 선창으로 애국가를 제창하였으며 참석자들 모두가 일어나 함께 불렀다. 애국가 제창 후 한기총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 공동회장 최원길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박종

만 목사가 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공동회장 정창모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곧바로 한기총 총무협 회장 서승원 목사와 부회장 이영구 목사가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이근영 장로의 헌금기도, 수원성전 여호수아성가대의 헌금송, 사회자의 광고 후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광복절 노래를 다 같이 불렀다. 이날 예배는 한기총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애국가 제창 솔리스트 정영환 · 김성혜 성도



안양성전 베다니성가대의 찬양

수원성전 여호수아성가대의 헌금송

APAGF 아시아 태평양 총회장 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선교지도자 회의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선교를 위해 의견 교환 세계하나님의성회 대륙별, 지역별 새롭게 편성



심용재 목사
국제총회장

APAGF 아시아 태평양 총회장 회의 및 아시아태평양 선교지도자 회의가 지난 7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장 등이 오랜만에 모여 안부를 나누고 실질적인 선교방안과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선교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총회장회의와 분과별(선교, 신학교, 다음세대) 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22일부터 24일 까지 열린 총회장 회의에는 한국(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홍콩, 미얀마, 인도네시



아, 캄보디아 총회장들과 각 분과별 리더들이 안건을 논의했다.

특별히 총회장 회의에서는 세계하나님의 성회 대륙별, 지역별로 새로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세계하나님의성회 회장 도니미 목사와 줌을 통해 새로이 편성된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하여 별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총회장 모임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로 편성된 부분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아시아로 되었으며 이중 북동 아시아 지역(4개국)으로 일본, 북한, 대한민국 기타 중앙아시아(6개국) 북아시아(5개국), 서아시아(8개국), 동남아시아(11개국)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그

프로젝트인 MM33(2033년까지 세계하나님의성회 교회(100만 교회)에 관하여 각국의 입장을 나누고 각국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각 분과별(선교, 신학교, 다음세대) 발표를 총회장 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26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

리더들이 참석하여 다음 세대 선교 동원(Mobilized Next Generation)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찬식을 끝으로 모든 회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에서 더욱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를 소개하고 선교의 비전을 나타 낼 수 있어 감사했으며 또한 총회를 위해 국제총회장(총회장)으로 섭임 수 있도록 해 주신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총회장 김영준 목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했다.

생명의 말씀



유흥열 목사

• 강원지방회 전임회장
• 영월열린교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 16:31~33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짓게 하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것을 안정감으로 여기며 산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잡혀지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육적 삶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욕심이 안정감은커녕 더 갈증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욕심이 안정감은커녕 더 갈증을

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의 안정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육신으로만 오신 예수님의 눈에 보여야 안정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잡히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이 믿음이 평안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즉 너희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든 흩어지고 떠나겠지만 미

리 이것을 이르는 것은 앞으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도 불안하고 두려움기운데 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거나 안정감으로 여기다가 실패한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깨달으라고 이것이 미리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의 삶으로 평안을 누립니까? 아니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두려움이나 초조의 불신앙의 마음기운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동정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월)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특히 안 전 재판관은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비판하고 예배 자유를 옹호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인권위가 그간 좌파적·친동성애적 행보를 강하게 보여 왔던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계는 그의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항서 전 감독 한남대 특강



한남대는 지난 8월 8일(목)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베트남 유학생과 함께하는 박항서 감독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꿈은 마음속에 갖고만 있으면 이뤄지지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항상 도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꼭 이루시길 기도합니다.”라고 전했다.

세기총 미주사무실 오픈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8월 1일(목) 오전 11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미주 사무실을 개소하고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다. 세기총 미주 사무실은 전기현 대표회장의 공약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 세기총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지역을 위해 개소하게 됐다.

영국서 동성애 반대 설교해 해고



영국에서 미션스쿨의 학생들에게 성경적 성 윤리를 설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목이, 더비 주교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 사건을 기각한 영국성공회 캔터베리대주교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노팅엄의 트렌트 칼리지의 교목으로 활동하던 베니드 랜들 박사는 2019년 설교 중 동성애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직장을 잃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해방은 역사의 순리이며 우리 민족을 살려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解放)을 맞았다. 우리가 독립을 원하고, 자주민임을 외치고도 28년이 지난 뒤였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을 항복시킨 연합국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통하여 일제에 의한 강제 합방(合邦)에 대한 저항을 했다. 그 후 민주를 중심으로 무장 독립군의 활동도 있었다. 그러나 1921년 리시아령의 소위 자유시에서 참변 이후 자주적인 독립군 활동은 잦아들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과 해방을 맞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흐름에 의하여 해방과 독립을 맞게 된 것은, 우리 민족을 복음의 도구로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해석된다.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국민들의 간구를 들어주

신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승만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의 외교적인 노력도 한몫을 했다. 거기에는 독립을 바라는 민족 선각자들의 희생도 있었다.

우리는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를 맹각한 민족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역사가 교훈하는 중요한 진리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누리는 번영은 우연일 수 없다. 절망의 시대에도 꿈꾸던 선각자들, 애국자들이 염원하던 조국의 그 모습이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오늘로 호화로운 급행열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다. 해방 정국(政局)에서 훈련했던 사회상도 소화해 보아야 한다. 해방은 되었으나, 구심점이 없고, 100여 개가 넘는 정당들이 난립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건국·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매우 크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후하게 점수를 준다는 사람들도 공(功)7, 과(過)3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대 교수를 지

내고 이승만 학당을 만든 이영훈 교수는 ‘경박하기 짜이 없는 언설(言說)에 불과하며, 몇 백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건국 이란 공을 세운 분’이라고 극찬한다. 그리고 ‘그 공은 절대적이다. 그가 범했다는 과오도 재해석될 것이다’고 한다.

국가를 새로 건국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환경은 창조의 일과 다르지 않았다. 다행히 우리의 건국을 도운 고마운 이웃 국가들이 있었다.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이룬 것이 못 되어서 공산 패권주의자들에 의해, 한 국가가 둘로 나누게 된 것이 오늘 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것이 국가적 불행이 되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북한공산당,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이 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구축한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赤化)시켜, 무력으로 침략하여 오늘의 불행

한 유산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현 시국을 보면, 해방 정국의 혼란과 혼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을 힘과 다수로 밀어붙이며 한국적 ‘탄핵 민주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하여 행정부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력화되고 있다.

올해로 79주년을 맞는 해방과 독립, 그리고 6·25 전쟁,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늘까지 지켜온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시 입법 독재와 거대 절단이 주도하여 타협과 협치를 무시하고 입법 독주하여 ‘삼권 분립’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을 크게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79년 전 우리의 자력(自力)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해방을 맞게 되었으며, 새로운 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

하여 수많은 인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다른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시대적 사명에 각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아직 남은 과제는 북한의 2000만 동포를 최악의 공산주의의 독재체제에서 해방 시켜야 하고, 호시탐탐 자유대한민국 호를 침몰시키려는 반민주주의 반역사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24년을 맞는 해방과 광복절은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려니와,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 그리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위하여 피 흘린 선각자, 애국자, 건국자들의 수고가 결코 허사가 되지 않도록 자강(自強)해야 한다.

그리고 비틀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지나는 다음 세대가 굽질된 역사물의 오물(汚物)물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국민적 지혜와 애국심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 9월 모임

교단신하 스포츠선교회 탁구선교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체육 탁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함께 복음전파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고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2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고산순복음교회(담임 기호선 목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총무 : 기호선 목사

서기 : 문찬우 목사

회계 : 이반석 목사

참여문의 010-5145-3816

믿음의 교제와 체력단련으로 함께 하실 동역자님을 기다립니다.

※초보자 레슨 환영합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출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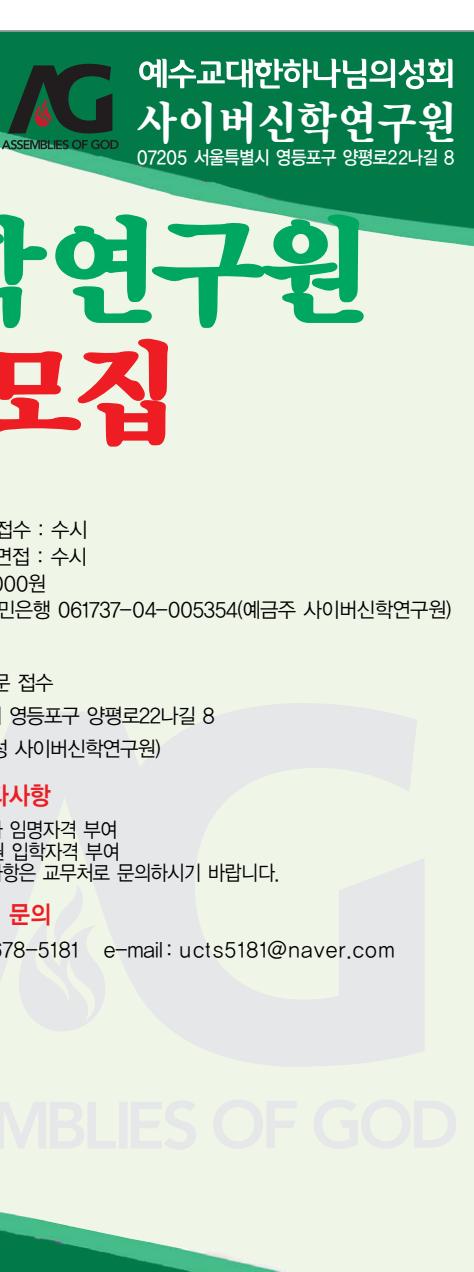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출판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③ 최종학교 출업 및 출업 예정 증명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⑦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주시 일명자격 부여
- ② 종합모의 대학원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다수국민의 눈높이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는 왜곡된 대한민국 인권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여 PC주의가 만연한 세계인권 흐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UN의 외압과 사법적극주의에 의해 곤혹스러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껴왔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반국민의 보편상식이 UN의 사주를 받는 인권위와 언론방송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때마다 대한민국이 마치 UN의 속국인 것 같은 비참함을 경험했다. 이는 인권위가 과거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처럼 앞잡이노릇을 해왔고, 언론방송이 부역(附逆)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 제1조에 명문화돼있듯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고, 올바르게 권한을 행사해왔는지 회의스러울 뿐이다. 2001년 5월 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이며, 헌법기관이 아닌 독립적 국가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권위가 UN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히 초헌법기관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익, 국민상식에 반하는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건 비극이다.

특히 2011년 9월 23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하여 체결한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모든 언론방송 보도를 통제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민의를 왜곡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로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게 됨으로 오히려 다수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자들을 향해 명백한 차별과 배제를 서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이 가득한 ‘인권감수성과 경험 가진 이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하라’는 성명서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 이처럼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건 대단히 혁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기에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국민과 고리되고 인권위와 밀착한 언론방송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비난 섞인 악의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타락한 언론방송의 악의적이며 선정적인 마녀사냥식 보도행태에 불과하다.

우리는 PC주의(정치적 올바름)와 어퍼머티브액션(A.A.,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경도되고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국가인권위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정로(正路)로 회귀하길 바라며 이를 가장 적합히 수행할 인물이 안창호 후보자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특정 소수집단만을 중시하고 다수국민을 배제시켜온 편향성과 이중성(二重性)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권고조치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앉히려는 독선적 태도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수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상식을 믿고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고리된 국가기관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는 게 정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3항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제30조에서는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 심지어 UN까지 이를 어기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고 탄압하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돼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권의식이다. 이는 오히려 다수의 인권을 파괴하고 짓밟으려는 전제주의적 시각으로 반인권적이기에 극히 경계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보편인권을 수호하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기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배제의 시각으로 비난해선 안된다. 헌법재판관은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법조계에서도 최상위 실력을 가진 이들이 임명되기에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자격시비는 편향된 정치이념에 의한 마구잡이 비난에 불과하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휘할 최적의 인사임을 재차 강조한다.

지금까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전제주의 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획책하고 노골적인 동성애 지지 활동을 함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며, 에이즈 감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국민주권을 훼손해왔는데, 이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지지하는 부당한 활동을 종결시키고, 전제주의 사회로 이행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을 저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인물임을 믿기에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성숙한 인권의식에 의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편향된 인권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방송의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차별과 배제의 기사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며 UN의 나팔수로 일관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불가능할 경우 즉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국민 통의 없이 체결해 반헌법적 역차별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하며 다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인권보도준칙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인신공격성 기사, 무력시위에 대해 맞대응하여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8. 15

●주최 :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평연, 제자광성교회, 에스더기도운동,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문의 :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010-5393-1981

●참여단체 :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기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광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 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지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회 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 위한 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기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 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1,200개 시민단체

8·15 광복절 79주년 국가기도회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려

말씀중심의 한국교회로 거듭나길...저출산 극복, 안보강화, 평화통일



이광용 목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종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이하 예장총연)는 8.15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8.15 국가기도회 및 특별세미나를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복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된 대한민국, 든든한 안보로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 길 것과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WCC와 로마 가톨릭과 결합하여 한국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 변질시킨 패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기도했다.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는 예장총연 회장 김화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국가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통성기도 한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이광용 목사는 대회사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로 인해 분열된 역사를 가져 왔으며, 예장총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살피고 말씀중심의 한국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행물윤리위, ‘항문성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 국민권익위에 ‘명확한 조사’ 촉구

음란성 논란의 초·중·고 성교육 도서 66권에 대해 ‘유해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교사 및 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16일 (금)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명확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및 전국 67개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날 “66권의 도서는 현재 전국의 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서 청소년이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실금은 물론 애이즈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항문성교의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해친다”며 “항문 섹스를 이론적으로 검증된 성행위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고, 의사들이 허용하는 성행위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자체 확인 결과 이들 도서 중 대

부분은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 개수가 60회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현 간행물윤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도서가 초등학생에게 유해함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기반으로 판정하였다”며 “술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우스갯소리에 비견되는 타당성 없는 판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 임을 직시하고 최우선 처리하라”고 했다.

“러, 우크라 점령지서 기독교 박해 심각”

지도자들 고문·실종·살해당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트루데이(CT)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은 최근 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적대 행위 규모가 소련 시대의 억압을 연상시기며, 투옥·고문·살인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기독교인 설교자 에두아르트 차로프(Eduard Charov·53)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내전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8.15여 비상하라

앞산에 장중함이여 세월의 무게를 머리에 이었는가.
대지여 입을 벌려 희망을 노래하자.
산천초목이여 청리의 목청으로 천지에 화답하라.

아, 감격의 8.15여!
그대의 숨결 있기에 철천오백만의 맥박이 있고
그대의 힘찬 고동소리에 울림의 기상 되리라.

아, 터질듯 한 대한의 심장이여!
예수의 비전으로 도전하라.
아, 자유대한민국이여!
저 푸른 바다 오대양 넘어 비상하라.
아, 나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이여!
저 끝없는 별판 광활한 육대주 건너 도약하라.

대한의 빛 내일의 친란한 꿈이여.
제4차 문화 산업의 깃발을 드높이 세워
부국강병, 문화대국의 전열 가다듬자.

아 거룩한 예수 생명, 한국교회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아 그리스도의 몸이여 굳세게 일어나라.
어둠의 권세 결박하고 세계복음화 깃발 높이 들자.

기억하라 그대 8.15여 북녘땅 내 동포들을,
한국교회여 통곡하라 지하고회 내 형제를 위해.
오 주여, 사랑하는 북녘땅 옛적 고토의 땅
부디 북읍의 전당으로 새롭게 창조해주소서.
슬프고도 아름다운 땅 함께 울고 웃도록
오 주여 그날을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가족세트전도 종재 박영수 목사는
통일이 되면 북읍을 들고 나아가리라.
북녘땅 내동포 위해 돌진.
영훈구원 위해 돌진.
목숨걸고 돌진 하리라—
라고 거듭 강조 한다.

작금에 이르러 가족세트전도는 한국강토뿐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돌진, 목숨걸고 돌진,
오늘도 돌진! 내일도 돌진!
한국교회복음화 위하여, 세계선교복음화 위하여,
돌진! 돌진! 돌진!——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7월 한 달간 전국 4개 교회 생명나눔예배

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주일을 나눔예배로 생명나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7월 한 달간, 전국 4개 교회에서 창립주일을 기념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총 337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색감리교회(김모세 담임목사)는 창립 112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1912년 7월 5일, 일제 강점기의 수난 속에서도 굳건한 북읍의 뿌리를 내려온 수색감리교회는 이날 창립주일과 맥주간사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수색감리교회는 2006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현재까지 이번 161명 포함, 총 249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생명나눔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이어 7월 21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성제1교회(신광호 담임목사)에서도 창립 20주년을 맞



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신 목사는 “우리 모두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생명을 살리는 기쁨에 함께하고자 결심한 85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여 희망

을 나누었다. 2009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명성제1교회는 총 195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약속하며 장기부전 환자들을 섭기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창립 90주년을 맞은 광탄교회(최진우 담임목사)도 올해 처음으로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창립주일을 기념했으며, 창립 72주년을 맞은 문래동감리교회(최호찬 담임목사) 또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생명나눔의 빛을 밝혔다. 또한 청파중앙교회, 동성교회, 반동제일교회도 다가오는 창립기념 주일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본부 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창립주일을 기념하며 생명을 구하는 귀한 사역에 앞장서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약속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이 하루빨리 생명의 빛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랑의 삼계탕데이 및 생필품전달식 가져

월드뷰티핸즈, 해돋는 마을, 신한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들을 밥파사역 등으로 섬기기 위해 소셜서비스 전문NGO (사)월드뷰티핸즈(상임대표 장민희)가 예장통합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임종한 장로) 및 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회장 오계석 장로) 등과 함께 ‘고독생프로젝트 삼계탕데이 밤사랑잔치 및 생필품전달식’을 가졌다.

7월 24일(수) 마포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진행된 행사는 (사)해돋는 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와 신한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소장 최에스더 교수)도 공

동 주최자로 함께했다.

이날 장현일 이사장은 “고독사를 고독생프로젝트로 전환해 외롭고 힘든 형편에 계신 독거 어르신분들께 진정한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싶었다”면서 “관계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인 엘드림노인대학생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예장 통합 평양노회 남선교연합회 임종한 회장과 평남노회 남선교연합회 오계석 회장은 “중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어려운 어르신을 비롯해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께 사랑의 삼계탕으로 섬길 수 있어 기쁘다”며,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힘차게 무더위 속에서도 더욱 강건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엘드림노인대학장 김관중 장로, 총무 박홍찬 장로,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마을), 최원희 강사(엘드림노인대학) 등 많은 관계자들이 봉사자로 함께 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침)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심경,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흥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 (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햄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일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나와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나'라는 말을 사용하면 너무 인색해 보이기에 '우리'를 사용하는가 봅니다.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고향, 우리 교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등 해

아릴 수 없는 많은 말에 '우리'를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혹은 '우리 남편' 등의 말은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우리'를 붙여서 사용 합니다. 어쩌면 '나'를 붙이면 너무 각쟁이처럼 보일까 봐 '우리'를 붙여서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발달은 개인주의의 발달로 보입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인들은 '우리'와 '나'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들의 사고(Thinking)로 보면 '나'와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내 남편'이 옳지 '우리'는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의 어법보다는 의미의 중요성을 무게를 둡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나보다는 가정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보다는 '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

다. 햄버거와 콜라, 피자에 맛들고 재즈와 록 음악에 물들더니 '우리'를 던져버리고 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성과 개인주의가 앞서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가 앞서는 마음들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그만이지 남들이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와의 전통적인 윤리를 무너뜨리고 나라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습니다. '내 돈 내가 쓴다'고 뜻밖해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지 독립된 존재 중에서는 언제나 '나' 혼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와 '네'가 만나고 합하여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너의 아픈 일이 너와 나 곧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으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으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답게~ 답게~

답게라는 그말은 기분 좋은 말.

모자람도 넘치지도 않는 상태.

그 자리를 지키는 일 쉽지 않은 일.

은혜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네.

불순물 진흙덩이로 나를 만드사

내 영혼 깊은 곳에 생기 넣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사랑의 흔적 남겨 주셨네.

구원 받은 자답게...

약속 받은 자답게...

살아갈 책임 있는거 너는 알지?

말씀 듣는 내게 오셔 묻고 계시네.....

두근두근 설레는 이 마음

성령님 노크 하실 때 느끼는 나만의 체험.

말씀 들을 때 뜨끔했지만 나는 좋았네.

들뜰처럼 나의 할 일 알게 되어서...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 더운 폭염의 날씨에

가녀린 들풀은 자기자리 지키며

생명 위한 일을 하는데

"너는 요즘 어찌나?"

주의 자녀답게...

사랑 받는 자답게...



구역장 기도회 때 전도사님의 말씀 들을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각오를 넣어 주셨다.

(고전 15:58)을 생각나게 하신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협약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일 시 : 2024년 9월 12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장 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8월 30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장 목사 김영준
총무 목사 오세준